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23, 제47권 제2호, 1~15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3, Vol. 47, No. 2, pp. 1~15
http://dx.doi.org/10.26446/kjlrp.2023.6.47.2.1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인근 거주민과 관광객 비교연구

윤지인[1] · 전진희[2]
[1]경희대학교 교수·[2]한림대학교 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for outdoor recreationists visiting Jeju Gotjawal Provincial Park – the comparison of residents and tourists

Yoon, Jee In[1] · Jun, Jinhee[2]
[1]Kyung Hee University · [2]Hally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for outdoor recreation participants at Jeju Gotjawal Provincial Park. We additionally tested whether the place-of-residence(Jeju residents vs. tourist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place attachment-stewardship relationship. We collected a total of 457 surveys using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and performed the correlation, reliability, CFA, and path analysis using SPSS 26.0/Lisrel 8.70. The results partially supported our hypothesized model. First, outdoor recreationists' place attachment to the park did not influence personal environmental stewardship. Second, their place attach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public and social environmental stewardship. Last, we found the moderating effect of place-of-residence on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 The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both public and social environmental stewardship were stronger for Jeju tourists than residents. However, for tourists, place attachment did no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ersonal environmental stewardship. More investigation is required to understand how to encourage outdoor recreationists' personal engagement in stewardship behavior. This study showed that the place attachment-stewardship relationship could vary depending on the place of residence. Educational programs for tourists should be conducted so that they can recognize place identity to increase thei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Key words : place attachment, environmental stewardship, Jeju, outdoor recreation

주요어 : 장소애착심, 환경책무, 제주,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5477)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un, Jinhee (Hallym University, Tourism & Leisure Research Center)
E-mail: jjun@hallym.ac.kr
Received: April, 18, 2023 Revised: June, 2, 2023 Accepted: June, 21, 202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여가로부터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Bradley, Babutsidze, Chai, & Reser, 2020). 여가 참여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야외 여가활동의 경우 공공의 자연자원을 근거로 즐거움을 추구하기에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을 지켜나가려는 태도와 가치를 함양시키는 것은 여가 환경과 장소 관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Higham et al., 2016). 또한, 미래의 야외 여가활동 환경이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금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책무(environmental stewardship)란 생태계의 회복(recovery)과 인간의 복지(well-being)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실천(sustainable practices)을 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이용과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Chapin et al., 2010). 환경책무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환경심리 및 환경교육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Bennett et al., 2018),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들에게 환경책무를 향상시키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야외 여가활동 장소를 보존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가학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환경책무는 특정 여가활동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행하는 개인적 환경책무, 여가활동 장소와 관련된 환경행동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는 공공적 환경책무,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적 환경책무로 세분된다(Landon, Kyle, van Riper, Schuett, & Park, 2018).

환경책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야외 여가활동 연구자(Gottwald & Stedman, 2020; Trimbach, Fleming, Biedenweg, 2022)들은 인간과 자연 간의 심리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장소애착심(place attachment)'이 긍정적인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Gottwald & Stedman(2020)는 장소애착심과 같은 장소와 관련된 가치들(place-related values)이 환경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Gurney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양 여가스포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호주 대산호초(Great Barrier Reef)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장소애착심이 궁극적으로 환경책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지역에서 다이버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참여자에 의하여 산호초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은 행정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 관광객, 원주민들의 대산호초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심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장소애착심의 정도가 다양한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Trimbach et al.(2022)의 연구에서도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변수들(예. 장소정체성, 장소의미, 장소애착심)을 파악하는 것이 환경책무와 관련된 행동에 관여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면적 측면을 가진 환경책무(예. 개인적, 공공적, 사회적 환경책무)를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 하위요인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Lando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면적 특성을 포함하는 환경책무의 심리적 하위요인의 차원(psychological dimension of stewardship)에 대해 탐색하였으나, 그 이후에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가 시도된다면 환경책무가 장소애착심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이 강

조되어 발전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환경과 장소에 대한 심리적인 소속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발전될 수 있는 장소애착심의 하위요인 중, 첫 번째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으로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 장소에서 개인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한편, 그곳에서 여가활동을 하며 감정적으로 깊은 교류를 하고 있음을 느끼는 상태이다. 장소정체성이 높을수록 야외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친환경행동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윤지인, 김지혜, 2018). 두 번째 장소애착심의 주요 하위요인은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이다. 야외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는 것은, 그 장소가 나의 여가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또는 다른 여가활동 장소가 이 장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장소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보다 실질적인 유용성(utility)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yle, Graefe, Manning, & Bacon(2004b)의 연구에서는 장소의존성이 높은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그 장소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환경적으로든 관리적으로든 자신의 여가활동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강한 의사 표현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외 여가활동 장소 관리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김민규, 박수정, 2013; 송병주, 변지용, 이철원, 2008).

본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야외 여가활동 장소 중에서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연구를 위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제주곶자왈은 환경적 특수성과 보존적 가치를 가진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 거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야외 여가활동 장소이다(정광중, 2017). 한편, 제주 곶자왈은 독특한 식생 분포와 야생동물의 안식처로 인식되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김문기, 2023)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와 환경적 노력이 필요하다(윤지인, 박수정, 김나영, 김민규, 2022).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방문객들이 하이킹과 같은 야외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여가를 통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이 수반된다. 제주도 거주민의 경우 자신의 생활환경에 인접하여 다양한 야외 여가활동 장소(예. 산, 바다, 올레길)가 존재하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여가활동을 즐기며 여가장소에 대한 애착심과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의식을 함께 키워갈 수 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경우 이러한 제주의 특정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애착심이나 환경책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제주 거주민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Cottrell, Vaske, Roemer, 2013). 즉,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대한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에 대한 정도는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 사이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의 장소애착심이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한편, 이러한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가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 제주 거주여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시도는 환경적 가치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하기 힘든 제주곶자왈도립공원과 같은 여가장소에 대한 애착심이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여가참여자 집단을 위한 여가 및 환경교육 및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른 연구가설과 연구모형(그림 1)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환경정체성, 환경의존성)은 개인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환경정체성, 환경의존성)은 공공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환경정체성, 환경의존성)은 사회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거주지(제주 거주민과 관광객)는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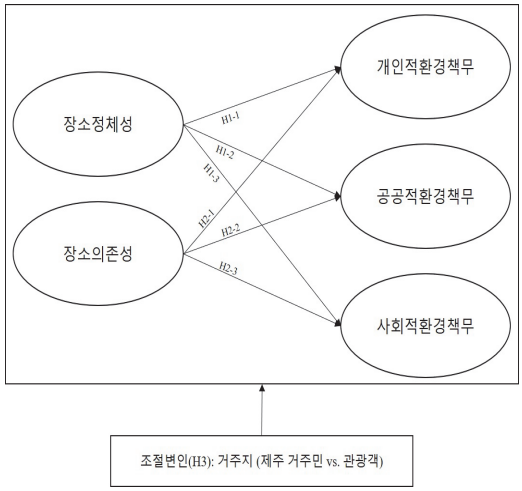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조사원 4명이 제주곶자왈도립공원 하이킹 트레일 시작 및 종료 지점에 위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내용, 연구목적 및 연구윤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후,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에서 응답내용이 90% 이상 누락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5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된 457명 중 남성은 170명(37.2%), 여성은 277명(60.6%)이었으며, 연령은 50대(27.2%), 60대(19.9%), 40대(18.6%), 30대(16.8%), 20대(14.2%) 순이었다. 연평균 소득은 6,000만 원 이상이 114명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표본수(명)	%
성별	남성	170	37.2
	여성	277	60.6
	결측	10	2.2
연령	20대	65	14.2
	30대	77	16.8
	40대	85	18.6
	50대	124	27.2
	60대 이상	91	19.9
	결측	15	3.3
연평균 소득	1,999만원 이하	56	12.2
	2,000-2,999만원	49	10.8
	3,000-3,999만원	65	14.2
	4,000-4,999만원	63	13.8
	5,000만원-5,999만원	49	10.8
	6,000만원 이상	114	24.9
	결측	61	13.3
교육	고등학교 이하	83	18.2
	전문대학교 졸업	44	9.6
	일반대학교 졸업	219	47.9
	대학원 이상	88	19.3
	결측	23	5.0
직업	학생	25	5.5
	직장인	104	22.8
	자영업	55	12
	전문직	96	21
	프리랜서	31	6.8
	무직	64	14.0
	그 외	63	13.8
합계		457	100

(2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0만원에서 3,999만원 사이가 65명(14.2%), 4,000만원에서 4,999만원 사이가 63명(13.8%) 순이었다. 설문 참여자의 교육 수준은 일반대학교 졸업이 219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88명(19.3%), 고등학교 이하 졸업이 83명(18.2%), 전문대학교 졸업이 44명(9.6%) 순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5문항, 장소애착심 8문항(장소정체성 4문항과 장소의존성 4문항), 개인적 환경책무(4문항), 공공적 환경책무(3문항), 그리고 사회적 환경책무(3문항)로 구성하였다(표 2 참고).

연구가설에 포함된 연구 모형에서 장소애착심의 두 하위요인인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Williams & Roggenbuck(1989)이 처음 제시하고 Kyle et al. (2004b)이 사용한 장소애착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는 장소에 대해 부여하는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와 연관된 애착심을 측정하는 장소정체성(4문항)과 자신의 여가행동 및 여가목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적 애착심을 측정하는 장소의존성(4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Kyle et al. (2004b)은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이 두 가지의 하위요인이 Williams & Roggenbuck(1989)의 척도를 사용한 후속연구들(Moore & Scott, 2000; Warzecha & Lime, 2000)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기에 이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장소애착심을 측정하였다.

환경책무는 개인적, 공공적, 사회적 차원의 환경책무로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Landon et al., 2018; Larson, Stedman, Cooper, & Decker, 2015). 환경책무의 문항들은 환경에 보탬이 되거나 혹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였다. 개인적 환경책무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과 같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환경책무를 의미하고, 공공적 환경책무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과 관련된 환경 활동(예. 환경운동에 서명하기)에 얼마나 관여하고자 하는지를 물었다. 사회적 환경책무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참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측정하였다. Landon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환경책무를 Larson et al.(2015)에서 사용된 사회적 환경주의(social environmentalism)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기초로하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들이 일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활동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였다. 개인적, 공공적 차원의 환경책무 문항들은 '제주곶자왈도립공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사회적 환경책무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문항내용을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과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내용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 완성 이전에 여가학 관련 연구 분야의 교수 1인과 동일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문항의 내용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잠재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여 변인의 구성개념과 조사된 데이터 간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낮거나 중복 적재된 문항들이 발견되었고, 개인적 환경책무에서 2문항과 공공적 환경책무에서 1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분석에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로 간주한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에 대한 기술통계,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모든 문항의 요인 적재치는 .807~.940 사이로 나타나 타당도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적합한 수준이었다(χ^2=485.695, df=86, RMSEA=.082, NNFI=.966, CFI=.972). 장소애착심(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과 환경책무(개인적, 공공적, 사회적)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23~.947 사이로 나타나 하위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Nunnally & Bernstein, 1994). 또한 변인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적합도 기준(CR은 .50 이상, AVE는 .70 이상)에 근거하여 적합한 수준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구성개념들의 수렴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조사내용 및 설문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았다(KHGIRB-21-400).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6.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Lisrel 8.70을 사용하여 제시된 연구모형의 변인들의 요인 구조(factor structure)에 대한 차원성과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장소애착심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 환경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X^2 및 df 값을 근거로 하였고, RMSEA는 1.00 이하, NNFI(TLI)는 .90 이상, CFI는 .95 이상, SRMR은 .08 이하이어야 적합한 것으로 평가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하위요인 및 문항	*M*	*SD*	λ	*t*	α	C.R.	AVE
장소애착심	*장소정체성*							
	PI1.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3.81	.97	.832	.037	.947	.948	.820
	PI2. 나와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동일시할 수 있다.	3.36	1.11	.930	.040			
	PI3. 나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있으면 강한 애착심을 느낀다.	3.49	1.09	.940	.039			
	PI4.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나에게 있어 특별하다.	3.58	1.11	.917	.040			
	장소의존성							
	PD1. 나는 다른 야외 여가장소보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더 선호한다.	3.63	1.02	.909	037	.940	.942	.804
	PD2. 나는 다른 장소보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3.68	.980	.909	.036			
	PD3. 다른 야외 여가장소보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3.61	1.03	.931	.037			
	PE4. 다른 어떤 야외 여가활동 장소도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대체할 수 없다.	3.34	1.14	.835	.044			
환경책무	*개인적 환경책무*							
	PES1.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4.73	.479	.932	.026	.906	.907	.831
	PES2.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물질을 투척하지 않으려고 한다.	4.75	.481	.891	.026			
	공공적 환경책무							
	PBS1.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	3.87	.951	.869	.036	.749	.771	.630
	PBS2.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서명할 수 있다.	4.29	.740	.711	.025			
	사회적 환경책무							
	SES1. 환경을 위한 단체에서 활동할 의사가 있다.	3.60	.980	.910	.030	.925	.925	.805
	SES2. 내 주변 사람들과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83	.938	.866	.029			
	SES3.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함께 일할 생각이 있다.	3.71	.966	.916	.029			
	적합도 지수	X2=485.695, df=86, RMSEA=.082, NNFI=.966, CFI=.972						

하였다(Hu & Bentler, 1998, MacCallum, Browne, & Sagawara, 1996). 마지막으로,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의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가 서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Lisrel 8.70을 이용하여 동질성 검증(invariance test)을 실시하였다(Bollen, 1989).

Ⅲ. 연구결과

1.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개인적/공공적/사회적 환경책무 간의 상관계수는 .175~.826 사이로 나타났다.

표 3.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장소정체성	1				
장소의존성	.826**	1			
개인적 환경책무	.175**	.170**	1		
공공적 환경책무	.588**	.582**	.317**	1	
사회적 환경책무	.549**	.588**	.207**	694**	1

*p 〈 .05, **p 〈 .01
(1)장소정체성, (2)장소의존성, (3)개인적환경책무, (4)공공적환경책무, (5)사회적환경책무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이 환경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 485.695, df=86, RMSEA=.082, NNFI=.966, CFI=.972, SRMR=.088으로 적절하였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 219.013, df=80, RMSEA=.064, NNFI=.987, CFI=.990, SRMR=.032으로 나타나 적합도 수용기준치를 충족시켰다. 또한 연구가설 4번에서 거주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 관광객(X^2= 128.777, df=80, RMSEA=.059, NNFI=.986, CFI=.990, SRMR=.035)과 거주민(X^2= 179.877, df=80, RMSEA=.069, NNFI=.984, CFI=.990, SRMR=.045)으로 집단을 나누었는데, 각 집단에 대한 모형적합도도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하였다.

3. 연구가설 검증

첫 번째 가설인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환경정체성, 환경의존성)은 개인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장소정체성(β=.082, p 〉 .05))과 장소의존성(β=.124, p 〉 .05)은 개인적 환경책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두 번째 가설인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환경정체성, 환경의존성)은 공공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소정체성(β=.399, p 〈 .001)과 장소의존성(β=.343, p 〈 .001) 모두 공공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공공적 환경책무는 장소애착심의 하위요인에 의하여 약 51.3% 설명되었다(R^2=.513).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대한 감정적, 기능적 애착심이

표 4. 집단별 장소애착심-환경책무 관계 모형 적합도

	$x^2(df)$	RMSEA	NNFI(TLI)	CFI	SRMR
전체집단 측정모형 (n=457)	485.695(86)	.082	.966	.972	.088
전체집단 경로모형 (n=457)	219.013(80)	.064	.987	.990	.032
관광객 (n=291)	128.277(80)	.059	.986	.990	.035
거주민 (n=166)	179.877(80)	.069	.984	.990	.045
적합기준	p 〉. 05	≤.08	≥.90	≥.90	〈.08

표 5. 전체집단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종속변인	예측변인	β	S.E	t	R^2
개인적 환경책무	장소정체성	.082	.113	.746	.040
	장소의존성	.124	.113	1.114	
공공적 환경책무	장소정체성	.399***	.138	4.138	.513
	장소의존성	.343***	.137	3.577	
사회적 환경책무	장소정체성	.224*	.116	2.482	.389
	장소의존성	.419**	.119	4.505	

*p 〈 .05, **p 〈 .01, ***p 〈 .001

높은 사람들은 공원 관련 범환경적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세 번째 가설이었던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환경정체성, 환경의존성)은 사회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장소정체성(β=.224, p 〈 .05)과 장소의존성(β=.419, p 〈 .01)은 사회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장소애착심의 두 하위요인의 사회적 환경책무에 대한 설명력은 약 38.9%로 나타났다(R^2=.389).

네 번째 가설은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거주지(제주 거주민과 관광객)는 장소애착심-환경책무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이었으며, 제주 거주여부가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에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가져오는지 동질성 검증(invariance 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제주 관광객과 제주 거주민의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거주지를 기준으로 제주 거주민(n=166)과 제주 관광객(n=291)으로 전체집단을 나누었다. 단계별 검증 기준과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동질성 검증은 요인구조 동질성(표 6에서 1단계), 요인 적재치 동질성(2단계), 그리고 경로계수 동질성(3단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질성 검증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모형(그림 1)의 요인 구조(factor structure)가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 두 개의 집단에서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총 5개 하위요인(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개인적환경책무, 공공적 환경책무, 사회적 환경책무)을 고정시킨 채 분석을 실시하였고, 1단계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X^2=308.936, df=160, RMSEA=.065, NNFI=.985, CFI=.989).

동질성 검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단 간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X^2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요인 적재치가 같을 것이라는 제약을 적용하였고(equality constraints for λ), 이 제약

표 6. 동질성 검증 결과

단계	X^2	df	RMSEA	NNFI	CFI
1. 요인구조 동질성	308.936	160	.065	.985	.989
2. 요인 적재치 동질성	331.626	170	.067	.985	.988
	Δ22.69*	Δ10			
2a. 최종모형	320.724	167	.065	.976	.988
3. 경로계수 동질성	333.961	173	.065	.985	.988
	Δ13.237*	Δ6			
3a. 최종모형	331.606	172	.066	.985	.988
→ 집단 간 차이가 있음으로 가설 4 부분 채택(거주지의 조절효과 부분 확인)					

*p 〈 .05,

2a. 총 2개의 요인 적재치를 자유 추정(λ3 1, λ12 4), 3a. 총 4개의 경로를 자유 추정(β5 1)

3a. 총 4개의 경로를 자유 추정(β5 1)

을 받은 모형의 적합도와 첫 번째 단계에서 채택한 기초 모형의 X^2값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두 집단의 요인 적재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ΔX^2=22.69, Δdf=10, p 〈 .05). 이에 따라 어떤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상이한지 개별 검증을 실시하였고, 장소정체성의 1문항('나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있으면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과 공공적 환경책무의 1문항('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서명할 수 있다.')이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동질성 검증의 최종 단계에서는 이 두 문항에 대한 자유 추정(free estimation)을 허용하였고, 2단계의 최종 모형을 확정(2a)하였다.

동질성 검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의 장소애착심이 환경책무에 미치는 영향력의 세기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따라 연구가설 4번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달랐다는 결과는 아니었으나, 선행연구(Chung, Kyle, Petrick, & Absher, 2011; Kyle, Bricker, Graefe, & Wickham, 2004a)에서는 설정한 경로 중 하나 이상 상이할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질성 검증 2단계의 최종모형(2a)과 3단계의 기초모형(3)의 X^2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ΔX^2=13.237, Δdf=6, p<.05).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의 계수가 차이가 있었는지 다음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해당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경로(장소정체성→사회적 환경책무)에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나머지 경로들도 계수 자체로는 차이가 있었으나, 동질성 검증으로 밝혀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준 경로계수의 차이는 해당 경로뿐이었다. 즉, 제주 거주민의 장소정체성은 사회적 환경책무(β=.493, p 〈 .001)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주 관광객의 장소정체성은 사회적 환경책무(β=.184,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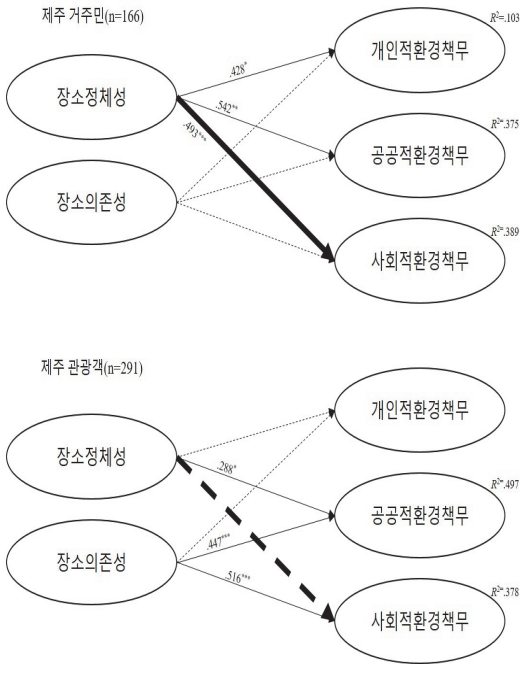

그림 2.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의 장소애착심-환경책무의 관계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야외 여가활동 장소 방문자들의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가 거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하이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시행하였고,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한편, 이러한 장소애착심-환경책무의 관계가 제주 거주 여부(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였고, 두 집단 간

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소애착심의 두 하위요인인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은 개인적 환경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개인적 환경책무란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공원 내에서 쓰레기 또는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개인적 차원의 환경친화적 행동의도를 의미한다. 연구분석 결과 개인적 환경책무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평균점수는 공공적·사회적 환경책무 문항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환경책무는 장소애착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설 1)를 해석하면,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 대한 애착심이 개인적 환경책무를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장소애착심과 개인적 환경책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장소애착심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친환경행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는 있었다. 친환경행동은 선행연구에서 일반적 친환경행동(general environmental behavior), 친환경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개인적 환경책무(personal stewardship) 등 각각의 연구에서 근거하는 이론이나 개념에 따라 명명하는 변인의 이름이 상이하였다. 그 예로, Scannell & Gifford(2010)는 자연환경에 관련된 장소애착심이 물과 전기 절약 및 쓰레기 줄이기 등과 같은 개인적 친환경행동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Song & Soopramanien(2019)의 연구에서도 거주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심이 친환경행동에 중요한 예측변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 수립에 장소애착심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에서 측정된 친환경행동의 문항들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개인적 환경책무의 문항들은 구체적인 환경행동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어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탐색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개인적 환경책무에 무엇이 선행하는지 연구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Landon et al. (2018)은 낚시 참여자들의 정체성(angler's identity)가 낚시 참여와 관련된 환경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믿음, 규범(personal norm)을 매개로 하여 친환경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적 환경책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의 환경책무는 개인의 정체성(identity) 또는 개인적 규범(personal norm)과 같은 도덕적인 가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Gatersleben, Murtagh, & Abrahamse, 2014; Nigbur, Lyons, & Uzzell, 2010)의 결과에 근거한다면, 개인적 환경책무는 여가 장소에 대한 애착심보다 다른 변수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개인행동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규범적인 측면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가 장소에 대한 애착심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환경책무의 선행변수의 예측에서 규범적 측면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공적 환경책무는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공공적 환경책무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위한 기부활동이나 공원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서명하는 등의 공적인 차원의 행동을 하려는 의지의 정도이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들의 경우 공원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느끼거나 동일시를 하고 있는 정도가 클수록(장소정체성), 또는 공원에 대한 기능적 유대감이 클수록(장소의존성), 기부 또는 서명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차원의 행동을 하려는 의지도 함께 증가하였다.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장소정체성이 공공적 환경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장소의존성이 공공적 환경책무에 미치

는 영향보다 더 컸다. 자신이 좋아하는 야외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인 애착심이 공공적 환경책무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적 차원의 환경책무는 공원의 관리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즉 장소애착심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Conrad & Daoust, 2008). 공공적 환경책무는 기부, 서명 이외에도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등의 문항도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부 및 서명활동에 관련된 문항들만 공공적 차원의 환경책무로 추출되어, 국내 현실에 맞는 문항 및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환경책무와 관련된 장소애착심 연구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소애착심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개별적 탐색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장소애착심(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은 사회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적 환경책무란 본인이 방문하고 있는 여가 활동장소가 아니더라도 더 큰 범위에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단체 활동에 가입 하여 활동할 의지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책무에 대한 개념의 발전은 최초에 개인적 차원과 공공적 차원으로 나뉘어서 논의되다가, 후에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적 경험을 포함하는 환경책무가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이 추가되어 최근에는 개인적, 공공적, 사회적 차원의 환경책무의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Landon et al., 2018; Larson et al., 2015). Gallay, Marckini-Polk, Schroeder, & Flanagan(2016)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장소정체성 및 환경정체성이 개인의 환경책무를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소를 중심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가치들(장소애착심, 장소의미 등)이 교외 지역 거주자들의 환경책무 및 친환경행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Krasny, Crestol, Tidball, & Stedman(2014)의 환경책무 관련 연구에서는 뉴욕시 야외 여가활동 장소 관리 봉사자들의 장소의존성이 환경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앞으로 사회적 차원의 환경책무에 관한 연구와 장소관련 변인들과의 연관성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장소정체성과 환경책무의 연관성이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주 거주민과 제주 관광객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여, 장소정체성-환경책무의 관계에 제주 거주 여부가 조절변인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주 거주민의 장소정체성은 사회적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제주 관광객의 장소정체성은 사회적 환경책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객 중 제주 거주민의 경우, 공원에 대한 깊은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공공 활동을 하는 등의 사회적 환경책무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주 관광객의 경우 장소정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심리가 환경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Raymond & Brown(2007)은 자연을 근거로 하는 야외 여가활동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관광객들보다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 및 이용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자신과 근접해 있는 여가활동 지역의 환경상태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Harrill(2004)은 야외 여가활동 지역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되면 거주민과 관광객 사이에 부정적인 사회적 교류가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해당 장소에 대한 환경적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환경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광객이 야외 여가활동 장소에 대해 갖는 장소정체성은 그 영향력이 제주 거주민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주 곶자왈 지대와 같이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야외 여가활동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그 관점을 서로 비교하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특히 야외 여가활동 장소는 도심보다 외곽이나 교외 지역에 많이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향후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하여 야외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원에 대한 장소정체성이 다양한 측면의 환경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증하였고, 이러한 관계가 제주 거주민과 관광객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첫째,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은 개인적 환경책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정체성은 공공적 환경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애착심은 사회적 환경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제주 거주민의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장소정체성-환경책무의 관계는 제주 관광객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경적인 특수성을 포함하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과 같은 야외 여가활동 장소 방문객들이 공원에 대한 애착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편, 이를 기본으로 환경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환경책무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결과이다. 또한, 환경책무의 다양한 차원의 하위요인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그 이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Trimbach et al., 2022)에서는 장소애착심과 환경책무의 관계를 검증한 바 있으나 환경책무를 단일요인으로 간주하여 심리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할 수 있는 환경책무의 내용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야외 여가활동 장소를 지켜나가려는 환경책무가 개인적, 공공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하였고, 그중 공공적, 사회적 환경책무는 장소애착심과 긍정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데 이론적 의미가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학문적 의의를 토대로 여가장소를 관리하는 실무자들은 방문객들이 단순히 이 장소를 일회성으로 방문하여 둘러보고 지나치는 곳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을 거듭하여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로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 곶자왈에 대하여 환경적인 가치를 설명하는 숲 투어 체험이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최승혜, 최정인, 유정숙(2020)의 연구에서는 야외 여가활동 장소에서 생태 및 환경교육을 하였을 때 자연과의 교감하고 있다는 인식과 환경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와 긍정적인 환경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 및 생태교육을 통하여 장소애착심과 같은 소속감을 발전시킨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환경책무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환경교육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원 방문 기회를 독려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키워나가며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이 환경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기에 교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야외 여가활동 장소에 대한 장소애

착심을 파악하고 이것이 환경책무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에서 하이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책무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개인적, 공공적, 사회적 차원에 대하여 기존 북미 지역에서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국내 상황에 맞는 환경책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사회적 환경책무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문제 관련 사회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되지 않고 사회적 환경주의(Landon et al., 2015) 문항에 근거하여 일반적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개인적, 공공적, 사회적 환경책무의 설문내용이 하나의 현상에 착안하여 통일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문기(2023, 4, 30).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 품은 제주의 보물창고. **제주일보**. Retrieved from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496.

김민규, 박수정. (2013). 한국형 장소귀속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3), 81-92.

송병주, 변지용, 이철원. (2008). 스쿠버 다이버들의 장소귀속감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1), 15-24.

윤지인, 김지혜. (2018). 신환경패러다임에 근거한 한강공원방문객의 환경인식, 장소애착, 친환경행동의도의 관계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3), 121-132.

윤지인, 박수정, 김나영, 김민규(2022).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방문 관광객의 환경태도와 친환경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진흥연구, 10**, 63-78.

정광중. (2017). 제주 곶자왈의 경관 특성과 가치 탐색. **문화역사지리, 29**(3), 58-77.

최승혜, 최정인, 유정숙(2020). 장소기반교육(PBE) 에 근거한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환경교육, 33**(3), 262-277.

Bennett, N. J., Whitty, T. S., Finkbeiner, E., Pittman, J., Bassett, H., Gelcich, S., & Allison, E. H. (2018). Environmental stewardship: a conceptual review and analytical framework. *Environmental Management, 61*, 597-614.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Vol. 210). John Wiley & Sons.

Bradley, G. L., Babutsidze, Z., Chai, A., & Reser, J. P. (2020). The role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response efficacy,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A two nation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8*, 101410.

Chapin, F. S., Carpenter, S. R., Kofinas, G. P., Folke, C., Abel, N., Clark, W. C., ... & Swanson, F. J. (2010). Ecosystem stewardship: Sustainability strategies for a rapidly changing planet. *Trends in Ecology & Evolution, 25*(4), 241-249.

Chung, J. Y., Kyle, G. T., Petrick, J. F., & Absher, J. D. (2011). Fairness of prices, user fee policy and willingness to pay among visitors to a national forest. *Tourism Management, 32*(5), 1038-1046.

Conrad, C. T., & Daoust, T. (2008). Community-based monitoring frameworks: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stewardship. *Environmental Management, 41*, 358-366.

Cottrell, S. P., Vaske, J. J., & Roemer, J. M. (2013). Resident satisfaction with sustainable tourism: The case of Frankenwald Nature Park, Germany.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8*, 42-48.

Gallay, E., Marckini-Polk, L., Schroeder, B., & Flanagan, C. (2016). Place-based stewardship education: Nurturing aspirations to protect the rural commons.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91*(2), 155-175.

Gatersleben, B., Murtagh, N., & Abrahamse, W. (2014). Values, identity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 *Contemporary Social Science, 9*(4), 374-392.

Gottwald, S., & Stedman, R. C. (2020). Preserving ones meaningful place or not? Understanding environmental stewardship behaviour in river landscapes.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98*, 103778.

Gurney, G. G., Blythe, J., Adams, H., Adger, W. N., Curnock, M., Faulkner, L., ... & Marshall, N. A. (2017). Redefining community based on place attachment in a connected worl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4*(38), 10077-10082.

Harrill, R. (2004).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tourism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8*(3), 251-266.

Higham, J., Vidar Haukeland, J., Hopkins, D., Inge Vistad, O., Lindberg, K., & Daugstad, K. (2016). National parks policy and plann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friluftsliv (Norway) and the dual mandate (New Zealand). *Journal of Policy Research in Tourism, Leisure and Events, 8*(2), 146-175.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

Krasny, M. E., Grestol, S. R., Tidball, K. G., & Stedman, R. C. (2014). New York City's oyster gardeners: Memories and meanings as motivations for volunteer environmental stewardship.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32*, 16-25.

Kyle, G., Bricker, K., Graefe, A., & Wickham, T. (2004a). An examination of recreationists' relationships with activities and settings. *Leisure Sciences, 26*(2), 123-142.

Kyle, G., Graefe, A., Manning, R., & Bacon, J. (2004b). Effects of place attachment on users' perception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natural sett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4*(2), 213-225.

Larson, L. R., Stedman, R. C., Cooper, C. B., & Decker, D. J. (2015). Understanding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3*, 112-124.

Landon, A. C., Kyle, G. T., van Riper, C. J., Schuett, M. A., & Park, J. (2018). Exploring the psychological dimensions of stewardship in recreational fisheries. *North American Journal of Fisheries Management, 38*(3), 579-591.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

Moore, R. L., & Scott, D. (2000). An analysis of place attachment to park versus a trail

within that park. In *Book of abstracts: Eigh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ety and resource management*(p. 223).

Nigbur, D., Lyons, E., & Uzzell, D. (2010). Attitudes, norms, identity and environmental behaviour: Using an 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o predict participation in a kerbside recycling programm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2), 259-284.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McGraw-Hill.

Raymond, C., & Brown, G. (2007). A spatial method for assessing resident and visitor attitudes towards tourism grow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5*(5), 520-540.

Scannell, L., & Gifford, R. (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1), 1-10.

Song, Z., & Soopramanien, D. (2019). Types of place attachment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s of urban residents in Beijing. *Cities, 84*, 112-120.

Trimbach, D. J., Fleming, W., & Biedenweg, K. (2022). Whose Puget sound?: Examining place attachment, residency, and stewardship in the puget sound region. *Geographical Review, 112*(1), 46-65.

Warzecha, C., & Lime, D. W. (2000). Place attachment on the Colorado and Green Rivers in Conyonlands National Park: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encounter norms. In *Book of abstracts: Eigh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ciety and Resource Management*(pp. 332-333). Bellingham, WA: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Williams, D. R., & Roggenbuck, J. W. (1989, October). Measuring place attachment: Some preliminary results. In *NRPA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TX*(Vol. 9).